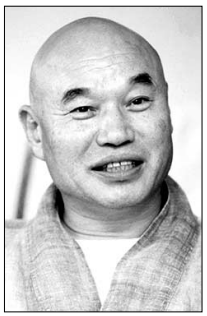


### 대강백 무비 스님 '입제록' 풀어내다

1971년 겨울, 봉암사에서 서용 스님의 <입제록> 강의를 들은 무비 스님(법어사 승가대학장·사진)은 이후 결망에 항상 <입제록>을 지니고 다녔다. 조계종 승가대학원장과 조계종 교육원장을 지내며 후학 양성에 힘쓴 대강백 무비 스님은 그렇게 30여년이 흐른 후에도 <입제록> 강의서를 펴냈다.

하지만 무비 스님은 "〈입제록〉을 강설하는 일은 쓸데없는 군더더기를 붙이는 것"이라고 말한다. 입제 스님 자신도 경건과 어록을 모두 '똥 댄 휴지'라고 일컬었다.

그렇다면 무비 스님은 왜 굳이 입제 스님의 어록을 풀어냈을까? "세상은 점점 말세적 현상이 짙어지고, 진정한 불법을 알고자하는 사람들은 줄어드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오로지 불초(佛敎)의 정법이 널리 퍼지고 오래 머물도록 하는데 일조자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책을 펴내게 되었습니다."



눈 어두운 불자들을 위해 스님은 <입제록>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말로 옮기고 그것에 대해 강의를 한다. '행산 스님을 점검하다' 편을 예로 살펴보자.

"입제 스님이 행산 스님에게 물었다. '무엇이 넓은 땅의 흰 소입니까?' '음매에, 음매에!' 하자, '범어리냐?' 하였다. '장모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니 '이놈의 축생아!' 하였다."

무비 스님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흰 소는 일불승(佛乘)을 뜻한다. 그러므로 그 질문은 '무엇이 부처입니까'가 된다. 소의 모습 그대로 부처이다. 산하대지와 삼라만상 그대로가 부처인데 부처가 아닌 것이 무엇이라? 그러나 부처라는 속뜻은 숨고 축생들만 낱뿔다. 두 스님이 약속이나 한 듯이 관중들을 희롱하고 있다. 무대가 좋아서 점검하는 일은 그쯤으로 해두었다."

쉬운 말로 내용을 풀어놓은 '강설'을 읽다 보면 마치 실제 스님의 강의를 듣고 있는 듯하다. 그래도 스님의 강의를 육성으로 듣고 싶은 사람이라면 인터넷 홈페이지 연화실(cafe.daum.net/umhwasi)에 방문해보자. <입제록>은 물론 <법화경> <유마경> 등의 육성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여수령 기자

입제록 강설 무비 스님 엮음 불광출판사 | 11만5천원



## 생활 속으로 들어 온 간화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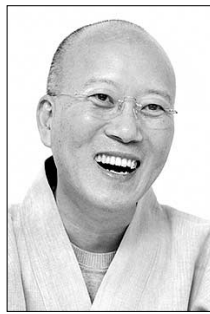


황금빛 봉황이 수불 스님 지음 | 여시아문 | 1만원

최근 몇 년 사이 한국불교계에 '간화선 수행 열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재가자들을 위한 수행체계와 점검과정을 갖추고 있는 안국선원이 불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산사 스님들만 할 수 있는 것이라 여겨왔던 간화선을 도심의 대중 결으로 내려오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1996년부터 재가자 결계를 시작한 안국선원이기 때문이다. 1989년 부산에 첫 문을 열 때만 해도 2천여 명에 불과하던 신도는 15년만에 1만8천여 명으로 늘었고, 현재 서울과 창원을 비롯해 미국 뉴욕과, 뉴질랜드 오클랜드 등에 지원을 열어 재가자들의 수행열풍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안국선원을 이끌고 있는 수장(首長)이 바로 수불 스님(사진)이다. 안국선원장 겸 이사장을 맡고 있는 스님은 부산지역 사회복지 구심점인 사단법인 불국토의 상임이사를 지냈고 보리방

### 재가자 수행 이끈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 운운 넘치는 시구에 올바른 수행법 등 답아



수불 스님이 최근 펴낸 책 <황금빛 봉황이>를 펴내며 불자들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어느 법어집과 달리 수불 스님의 법문은 시문(詩文)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법문을 그대로 옮겨 놓은 법어집에 익숙한 불자들이 자못 낯설게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선사들의 오도송이나 계송이 모두 '시(詩)'였음을 되새겨보면 다면 그 참뜻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책에는 평소 "재가불자도 간화선 수행에 전념해야 참나를 찾을 수 있다"고 역설해 온 스님의 지론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올바른 수행법과 수행자를 위한 조언, 수행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를 운운 넘치는 시구를 통해 전해준다.

특히 스님은 수행자에게 있어 좋은 스승을

송 문화상 운영위원장도 맡고 있다. 수행은 물론 불자들의 복지와 문화에 이르기까지 두루 스님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다.

그동안 공적인 자리가 아니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수불 스님이 최근 법문집 <황금빛 봉황이>를 펴내며 불자들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만나는 일만큼 큰 복이 없다고 강조한다. 좋은 스승에게 배워야 바른 가르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책에서는 올바른 스승을 만나지 못해 공부에 진척을 얻지 못하는 재가자들에게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낸다.

"많은 이들이 수많은 시간을 보내며 사구(死句)를 들고 어리석은 의식을 하고 있으나 누구 하나 올바른 길을 열어주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본인이 옳다고 고집하는 데야 별 수 없지 않겠는가. 오히려 성을 내며 받아들이려 하지 않으니 그 고집을 높이 살 만은 하나 그렇다고 공부되어진 것은 또 무엇인가."

불국사 승가대학장 탁민 스님은 서문에서 "바닷물이 밀려나 뒤 아름다운 조약돌이 드러나듯 깨달음이란 선어(禪語)들은 인위적인 문자를 배워 찾아볼 수 없다"며 "책에 담긴 실제의 묘용을 오득(悟得)해 모두 법계의 주인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하고 있다.

수불 스님은 1975년 법어사 자유 스님에게 사미계를, 77년 고암 스님에게 비구계를 받았으며 오는 4월 17일 미국 뉴욕 맨하탄에 본원인 '뉴욕 안국선원'을 개원하는 등 해외포교에도 앞장서고 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 지혜로운 자, 근심도 즐거움도 없다

산색-죽창수필 선역

윤서주필 지음 | 연관 스님 옮김 | 호미 | 9천5백원

"오직 지혜로운 사람만이 근심도 즐거움도 없다. 그러나 근심과 즐거움에서 벗어나는 것에 집착하는 것 또한 허망한 일이다. 크게 깨달아 크게 사무치지 않으면 진정한 자유는 없다." ('근심과 즐거움' 중)

명·청대의 고승 윤서주필 스님(1535~1615)의 <죽창수필(竹窓隨筆)>을 실상사 화엄학원 학장을 지낸 연관 스님이 우리말로 옮겼다. <죽창수필>은 스님이 수행 중 떠오른 단상을 '대나무 창가에서 붓 가는 대로 적은' 글 45여 편을 묶은 것으로, 연관 스님은 이 가운데 142편을 가려 담았다. 원고지 2~3매를 넘지 않는 짧은 글에서 수행자에 대한 경책과 바른 수행법 등 불가(佛家)의 가르침뿐 아니라 구습(舊習)에 대한 비판과 같은 세상 사는 이치도 일러준다.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것 또한 세상의 상사(常事)여서 이제까지 아무도 이를 비껴간 사람이 없으니 무엇이 새삼 놀랄 만한 일이겠는가. 다만 헛되이 살다 부질없이 죽어 가면서 도를 듣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놀랄 만한 일이건만, 이 일에는 오히려 태연하여 전혀 놀라워하지 않으니, 참으로 슬픈 일이다."

짧은 글 속에서도 핵심을 바로 일러주는 주필 스님의 필봉(筆鋒)을 연관 스님은 '노고추(老古錫)', 즉 '원숙하면서도 날카롭다'고 표현한다.



여수령 기자

입제록 강설 무비 스님 엮음 불광출판사 | 11만5천원



### 죽기 직전 단 한 번만 들어도 해탈

사진이 있는 티벳 사자의 서

스티븐 호지 · 마틴 부드 엮음 | 유기천 옮김 정신세계사 | 1만5천원

1995년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킨 <티벳 사자의 서>가 이번엔 사진과 함께 엮여 나왔다. 티베트의 위대한 스승 파드마 삼바바가 지은 <티벳 사자의 서>는 티베트인들에게 죽음의 순간에 단 한 번 듣는 것만으로도 영원한 해탈에 이르게 하는 경전으로 여겨진다.

이 책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들 수 있다. 첫 번째는 티베트의 풍경과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상을 사진으로 결집한 점이다. 티베트 불교나 불교에서 말하는 사후세계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사진을 통해 본문의 내용에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돕는다.

두 번째는 원문을 간소화하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해설'을 두고 있는 것이다. 본문에 앞서 '중간세계' '삼보(三寶)' '육도(六道)' 등에 대한 자세한 해설을 덧붙였다. 특히 기존의 국내 번역본에 나오는 큰따옴표가 여성형이 아닌 남성형으로 잘못 번역된 것이나 아귀계와 아수라계가 색깔을 붉은색과 초록색으로 묘사한 것을 이번 책에서는 노란색과 붉은색으로 고친 점 등도 눈에 띈다.

여수령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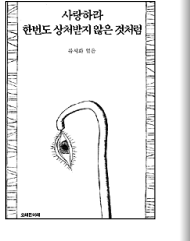


### 새로운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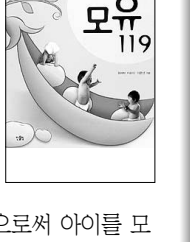
■ <생활 속에서 마음되기> (법상 스님 지음, 무한, 7천원) = 누구나 행복을 꿈꾸지만, 진정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은 드물다. 인터넷 홈페이지 목탁소리(www.moktaksori.org)를 운영하고 있는 군법사 법상 스님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명상을 통해 행복을 지름길을 제시한다. '지혜롭게' '평화롭게' '자유롭게'를 주제로 생각할수록 거리를 댈수록이다.



■ <사랑하라 한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류시화 엮음, 오래된 미래, 6천5백원) = 류시화 시인이 '힐링 포엠(Healing Poem, 치유의 시)'을 주제로 77편의 시를 엮었다. 힐링 포엠은 사랑의 여리 명상 센터에서 활용되고 있는 마음 치유법의 일종이다. 시집에는 고대 이집트 파피루스에 적힌 시에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시인의 작품이 실려 있다.



■ <모유 119> (하라타 키요미·이은선 지음, 한울림, 1만3천원) = 모유수유율 15%에 불과한 우리나라,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젖이 부족하거나 아이가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모유수유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의 지은이는 어머니의 몸을 건강하게 가꾸으로써 아이를 모유만으로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라타 키요미의 <모유 100>이란 책을 한국생협연합회 국제교류팀 원 이은선씨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재구성했다.



### 금주의 베스트셀러 10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용서	달라이라마	오래된미래
2	방의지사	조 용 현	정신세계출판사
3	禪, 너는 누구나	현대불교신문	여시아문
4	현대심리학으로 풀어본 대승기신론	서광 스님	불광
5	영가천도	유훈 스님	효림
6	오래부지	한 경 해	반디미디어
7	산색	연관 스님	호미
8	우리 거기 세상이 있다	묘 원	행복한소
9	부리 곁에 오신 미륵	원봉 스님	해조음
10	입보리행론	산티데바	하얀연꽃

도서 안내: (02)737-0695

세계 최대의 공인전 선문염송! 전각 대승사님의 인가제자인 대원문계현 선사님이 역저한 <미륵보인 선문염송> 전3권중 제6권 출간! 최초로 1,454쪽의 분공안을 한 권도 빠짐없이 펴내고 송하여 공인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 "운명"을 읽고 나면 성공이 보인다!!!

마음과 운명을 바꾸어 주는 책 ○ 오희규 실화소설 **운명**

주요수록내용

- 공화이야기 성기가 말을 안들어요 땀이 미쳐가고 있어요 의처증 이야기 바꿔 놓고 생각하기 실수의 흔적 처제와의 불륜 육체란 무엇인가? 입시이야기 성형수술이야기 제발 시집가고 싶어요 세번 결혼한 집사님 인태와 섹스의 비밀 남편과 제발 헤어지게 해주세요 두번 태어난 보일러공의 행복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노처녀의 사랑이야기 넘치는 정열을 주체할 수 없어요 자신의 처지를 겸허히 인정하라 운명을 바꾸는 법

전3권 완간기념 할인판매 50%

전집구입시 15,000원 후불제! (062)266-1083, 266-6693 으로 전화주시면 책 먼저 보내드립니다

입금계좌: (예금주: 오희규) 농협 601175-52-016521

연락처(우편번호 500-500) 광주광역시 북구 정동(양정)동 374-2번지 전화: 062-266-6693

## 미륵은 진정 우리 곁에 있는가

이 책이 던지는 여덟 가지 질문

- 1 아함경에서 설하는 인수 팔만 사천 세의 의미는 무엇인가?
- 2 소승경전의 무상성과 대승경전의 항상성은 어떠한 관계인가?
- 3 12연기법의 무명과 대승불교의 광명사상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4 법화경의 일불승 사상은 중생이 부처되는 교설인데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무엇인가?
- 5 화엄경의 세계는 실세계인가 아니면 상상의 세계인가?
- 6 주역에서 설하는 선천·후천의 개벽사상에 대한 불교적 해석은 무엇인가?
- 7 극락세계는 진정교 서방세계에 있는가?
- 8 최근에 지진이나 해일 등 자연재해가 잦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책은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여덟 가지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드립니다.

미륵은 한 사람이 성도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과거 6불과 당신 스스로를 포함하여 현재 7불의 본말을 밝혔듯이, 미륵이 오실 때도 7불의 처음과 끝을 밝힌다고 하시는 까닭에 미륵불은 6명의 도통을 이어서 7번째로 완성하심을 스스로 밝히게 되어 있다. 이제 일곱 불의 도통 원인과 의의를 밝혀서 비로소 드러나는 진법 대승불교의 일불승 사상을 드러내자고 한다.

※ 전국 유명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구입문의 : 해조음 053) 624-5586 / 정토사 053) 622-0333